

제51호 회보 2000.9.

* 대한신경과학회 제3차 이사회가 2000년 8월 25일(금)에 학회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토의 및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술위원회

10월 26, 27일로 예정되었던 제19차 추계학술대회 연제 발표는 취소되었고 의료현실과 신경과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 및 각 위원회의 활동소개와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부 주제 및 일정은 추후 현 사태의 진전에 따라 조정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접수되었던 초록 원고는 저자들에게 반송하였습니다.

♣ 수련위원회

Inservice exam을 위한 문제 출제를 150 문항으로 선종 완료되었으나 현 의약분업 사태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수련병원의 실태조사는 기존의 수련병원들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 심사로 대처 완료하였고 2001년도 신규 레지던트 신청의 12개 병원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1년차 레지던트 신청 인원예 대한 대한 신경과 학회의 인원 기준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속 전문의 수-1을 유지하도록 논의되었습니다.

200년도 추계 보수 교육 일정은 간질 분야로서 증례 중심으로 Video presentation을 4시간으로 예정하고 다른 4시간은 뇌졸중, 운동장애, 치매, 말초신경분야의 4분야에 해당 환자 중심의 증례 토의로 기획되어 있었으나 현금의 사태로 인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동통 재촬영에 대한 보수 교육과 Workshop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통한 3, 4년차 전공의의 특별 보수 교육, 신경과의 실기 분야에 대한 소그룹 Workshop, 신입 1년차 대상의 합동 Orientation 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9월 중에 3, 4년차를 대상으로 2박 3일 정도의 Review Course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타당성에 대한 견해

찬성	210	전공의 (77.2%) 전문의 (68.2%)
반대	74	전공의 (22.8%) 전문의 (31.8%)

2. 전공의를 대상의 EMG, EEG, TCD, EP등에 대한 소그룹 Workshop 과정의 신설

에 대한 견해

찬성	243	전공의 (85.4%) 전문의 (86.6%)
반대	60	전공의 (14.4%) 전문의 (13.4%)

3. 신임 1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합동 오리엔테이션 실시에 대한 견해

찬성	182	전공의 (66.4%) 전문의 (60.6%)
반대	101	전공의 (33.6%) 전문의 (39.4%)

❖ 고시위원회

1. 신경과학회 고시위원회 문제출제 의뢰

2000년 5월 23일 30명 의뢰하여 6월 말까지 29명 회신
문제 출제(4문제 이상):약 120문제가 신규 출제

2. 전문의 시험 문제은행 정리작업

일 시 : 2000년 7월6일 ~ 8일

위 치 : 양평 한화리조트

참석자 명단 :

전우일남(연세의대) 이광호(성균관의대) 김승민(연세의대) 김재우(동아의대)
김주한(한양의대) 서대원(성균관의대) 이경민(서울의대) 조기현(전남의대)
하정상(영남의대) 이일근(인하의대) 박형국(순천향의대)

객관식		주관식	
분야	소계	분야	소계
정상 및 기초	18	정상 및 기초	7
뇌혈관질환	19	뇌혈관질환	5
말초,근육질환	15	말초,근육질환	4
발작성질환 (경련/두통/수면)	15	발작성질환 (경련/두통/수면)	4
운동성질환 (퇴행성/행동장애)	12	운동성질환 (퇴행성/행동장애)	3
유전성,발달장애	4	유전성,발달장애	2
감염성질환	7	감염성질환	2
탈수초성질환	3	탈수초성질환	1
독성,대사성,종양	7	독성,대사성,종양	2
	100		30

3. 2001년도 신경과 전문의 자격1차 시험 출제계획

4. 문항개발 및 관리에 관한 Workshop 개최

9월 23일 (토) 삼성서울병원 지하 3층에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의료계 현안 문

제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 편집위원회

1. 개정된 투고규정은 18권 4호(7월31일 발간)에 게재하였으며, 홈페이지에 더 자세한 투고규정을 올리기로 하였으니 회원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투고규정은 2000년 8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전체적으로 논문의 길이를 줄이도록 하였으며, 증례보고와 단신보고의 구분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개정된 투고규정에 따라 증례보고와 단신보고의 구분은 2001년 1월 호부터 적용하며 2000년 8월 15일 이전에 접수된 논문은 기득권을 고려하여 단신보고보다는 가능한 한 증례보고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투고규정을 지키지 않아 반송되는 논문이 아직 많습니다. 저자께서는 원고를 작성하기 전에 투고규정(18권 4호, 2000년 7월 호)을 세밀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00년 9월 23일 개최 예정이었던 고시위원회-편집위원회 합동 워크숍은 현재의 의료계의 폐업사태 때문에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3. 학술진흥재단에 대한신경과학회지의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4. 논문의 심사가 지체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사위원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지정된 기일 내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위원회

1. 2000년 7월 12일에 교육문화회관에서 제2차 보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3명의 보험위원들이 참석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토의하고 대책을 논의함.

- 1) 보험위원회 회칙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수정 보완함.
- 2) 항우울제 신경과 보험급여
- 3) 두개강내 전극의 보험급여
- 4) 통증치료술의 신경과 급여
- 5) 대체 조제에 포함된 신경계 약물에 관한 토의

2. 대한신경과학회는 신 의료행위분류와 개정 상대가치를 받아드리기로 결정함. 2000년 9월말에 수가 계약이 시행되면 2001년 1월부터 신 의료행위 분류과 개정 상대가치가 반영될 예정임.

3. 2000년 하반기 내에 동등 재할 workshop을 개최하여 신경과 전문의도 trigger point injection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받도록 할 예정임.

4. 2000년 하반기에 신경과 질환에서 항우울제 필요성과 사용 방법에 대하여 심포지움을 열고, 신경과 전문의도 SSRI 계의 신 항우울제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임.

5. 신경과 질환에서 사용되는 각 약물의 보험인정 최대량의 개정을 위하여 각 분과학회와 연구회에 검토를 의뢰함.

맺음말: 최근 보험위원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보험위원회의 일이 산더미 같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들은 병원 폐업으로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이며, 같은 연유로 분과학회나 연구회의 협조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보험위원회에만 일을 맡길 때가 아닙니다. 학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문제점을 제시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조금 시간을 내셔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사유서(의학교과서나 문헌에 근거한 과학적인 내용과 참고문헌 포함.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는 별로 소용이 없음)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문제점만 던지고 건의만 한다면 누가 그 내용을 찾아서 확인하고 정리하는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작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보험위원장(홍승봉 보험이사: 02-3410-3592, sbhong@smc.samsung.co.kr)에게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또한 만일 사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신 논문의 list를 주시면 2-3일 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발 문제점이나 건의 내용뿐 아니라 복지부에 건의할 내용도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각자의 의견과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 해결을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의료대란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만 많고 사공이 별로 없으면 때가 어떻게 갑니까? 조그만 강을 건너는데도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보험위원 자원을 바랍니다. 학회 자유게시판에 보험위원 자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한 명도 자원하신 분이 없습니다. 택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조금씩만 도와주신다면 그것이 모여서 큰 힘이 됩니다. 요즘과 같은 의료대란의 시기에 신경과학회지에 논문을 한편 쓰는 것과 의료보험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의료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진료는 물론 의학연구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학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물론 전공의와 전임의들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 홍보위원회

1. 보고사항

1) 대중강연회

-양천노인종합복지관(대강당 200명)

(6/23): 어지럼증

파업으로 고려의대 박건우 교수 대신 연세의대 김승민 교수가 수고해주셨습니다.

- 휘닉스파크 호텔 2층 다이아몬드룸

(7/29)두통과 어지럼증: 가톨릭의대 이광수 교수

(8/5) 수면장애(불면증, 수면무호흡증, 수면과다증, 기타수면장애):

성균관대의대 홍승봉 교수

(8/12) 손저림, 안면신경마비 등 말초신경병: 연세의대 김승민 교수

현지 사정상 참가인원은 많지 않았습지만 4주간 많은 장소에 부착된 포스터와 휘닉스파크 홍보 팸플릿에 '대한신경과학회와 함께 하는 건강교실'이 소개되었고 휘닉스파크 TV방송 자막으로 소개되었기에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인원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명강의를 해주신 강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제주도

(9/2) 제주시 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회의실

대상:제주도민, 보건 공무원, 보건소, 보건지소, 간호사, 보건요원 (약400명)

언론:한국케이블TV 제주방송에서 생중계하며 녹화하여 지속적으로 방영할 계획, MBC 라디오에서 8월 31일 인터뷰, 기타 시장정보지, 제주지역 언론(공중파,신문)에 소개

주제: 손 저림, 안면신경마비-뇌졸중의 초기증상일까요?:

연세의대 김승민 교수

예고없는 뇌졸중-안심할 수 없습니다 : 경북의대 서정규 교수

치매를 예방하려면? : 가톨릭의대 김범생 교수

제주도의 요청으로 내년에도 제주도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9/18, 9/20)

뇌졸중 환자 담당 실무자 교육

강사 :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김형철교수

-양천노인종합복지관(대강당 200-250명)

(9/27): 손 저림, 안면신경마비-뇌졸중의 초기증상일까요?

한림의대 한강성심병원 김성민 교수

-중구종합복지관

(9/22) 치매: 서울의대 김상운 교수

(9/29) 두통, 어지럼증: 고려의대 박건우 교수

(10/6) 손 저림, 안면신경마비: 가톨릭의대 김영인 교수

(10/13) 뇌졸중: 을지의대 김병건 교수

-북부노인종합복지관(대강당 250명)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 저림과 안면신경마비, 치매, 수면장애, 퇴행성뇌질환 (파킨슨병 포함), 통증을 주제로 9/2부터 10/26까지 8회에 걸쳐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병원진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21일 치매의 날에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치매와 신경과 질환에 대한 대중강연회를 7개월 전에 예약하여 준비하여 왔고, 언론 매체를 통한 신경과 홍보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 의료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전국 동시에 치매 및 신경과 질환에 대한 대중 강연 계획도 취소 하였습니다. 9월 21일 이 전에 의료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능한 10월 2일 노인의 날과 치매의 날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신경과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2) 홍보용 비디오, 소책자

-치매, 두통, 손 저림과 안면신경마비, 퇴행성 뇌질환 비디오 제작하여 정보위원회와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힙닉스파크에서 있었던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 강의를 촬영하여 편집 중입니다. 9월 중순경 출시될 예정이며 향후 중요 강연은 비디오 제작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손저림 소책자 제작(2만부)에는 김승민 교수님과 선우일남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 소책자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신경과홍보용 소책자는 추계학회 기간에 개최되는 서울포럼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여 전체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할 계획입니다.

-홍보용 소책자가 CD로 제작되어 정보위원회의 도움으로 인터넷 홍보에 사용 됩니다.

3) 향후 계획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신경과 홍보.
다양한 대중 강연회를 통한 신경과 소개.
인터넷 홍보.

4) 알림

-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인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강연 제목을 모집합니다.
- 손 저림 소책자와 홍보용 강의 비디오에 관한 것은 학회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 추계학술대회 기간인 10. 26.-27. 홍보위원회 시간에는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방법 등에 관한 Image 연출'을 주제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대중강연이나 TV 토론 등에 참여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손 저림 소책자를 동봉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학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용 비디오는 학회 홈페이지 동영상 서비스를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고

- 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2000년도 2/4분기 학회 학술활동 지원금 200만원 청구하였음.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2000년도 학술대회 개최 지원금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각 수련병원 신경과장과 대한간질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 대상 범주 확대를 위한 2단계 선정에 관한 대한신경과학회 의견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하였음.
- 의학용어개정위원회의 교정작업을 거쳐 신경과 의학용어 시정 보완 요청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하였음.
- 대한의학회에서 지난 6월 30일 모범처방전 작성 작업을 위한 회의에 선우일남 이사장과 김승민 총무이사가 참석하였음.
- 대한의사협회에서 [각 과별 다빈도 질환 또는 증상에 대한 처방 예]를 본 학회에 요청하였는 바 이 문제는 신경과 회원의 처방에 대한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의료보험 삭감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제출을 보류하였음.
- 신경과 정회원 516명의 회비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3년 연속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에게 회원 자격 상실에 관한 규정을 통보한 후 회비 납부를 독촉하였음.
- 대한의사협회의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2배수 추천

의뢰에 따라 학회에서는 이광수, 이병철, 이창훈, 조필자, 홍승봉, 황연미 회원을 추천하였음.

■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위원회 여성위원 추천요청에 따라 박미영, 조필자 회원을 추천하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부지원 대상 희귀질환 선정을 위한 전문가 추천요청에 따라 김성민, 이광수, 홍승봉 회원을 추천하였음.

♣ 회원 동정

강재영 회원(울산동강병원) 1999. 12. 25. 결혼 / 축하드립니다.

서대원 회원(삼성서울병원) 2000. 8. 16. 부친상/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희종 회원(오희종신경과의원) 2000. 8. 26. 개원/축하드립니다.

전동철 회원(한양대병원) 2000. 7. 2. 결혼/축하드립니다.

♣ 알림

* 2001년도 간질-수면장애 전임의 모집 공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 2001년도 간질-수면장애 전임의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시거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시시오.

삼성서울병원 간질-수면장애 프로그램 director: 홍승봉 교수

주소: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우편번호: 135-710)

전화: 02-3410-3592, FAX: 02-3410-0052,

e-mail: sbhong@smc.samsung.co.kr 또는 hongsb@samsung.co.kr

* 대한근전도 전기진단학회 학술대회 연기

9월 29일(금)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예정인 학술대회가 의약분업 등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으로 일정 대로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술대회 초록은 학회에서 보관하겠으며 향후 일정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